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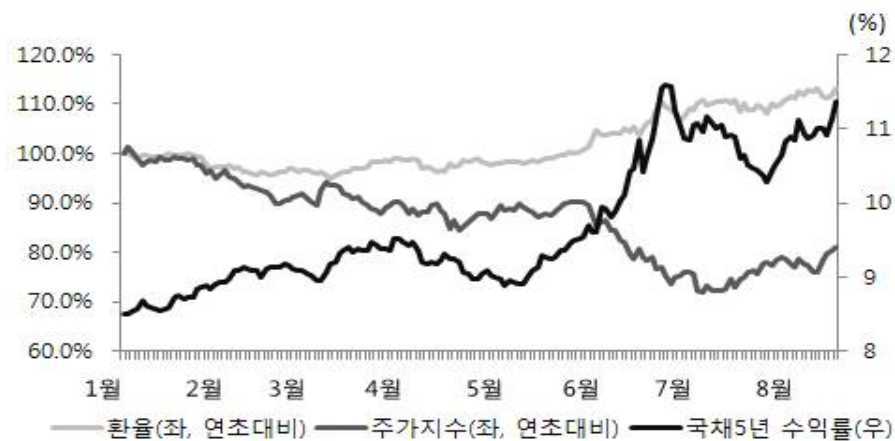


브라질 경제 불안과 시사점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시사 후, 대표적인 신흥국인 브라질에 대한 투자 자금이 급속히 유출되면서 환율과 이자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브라질 금융시장이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.
-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브라질 경제는 중국 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2011년 2.7%, 2012년 0.9% 성장에 그쳤으며 2013년 1/4분기 성장률도 1.9%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.
- 브라질 경제가 저성장 하는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발표로 브라질 금융시장에 투자된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연초 2,046을 기록했던 달러 대비 헤알화 환율은 8월 13일 현재 2,314로 13.1% 상승함.
- 브라질 채권에 대한 매도가 확대되면서 5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초 8.5%에서 8월 13일 현재 11.4%로 2.9%p 상승하였고 브라질 주가지수인 보베스파 지수 또한 연초대비 20% 가량 폭락함.

〈그림 1〉 2013년 브라질 환율, 주가, 금리 추이



자료: Bloomberg.

- 한편, 환률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브라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함.
 - 2013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10월 이후 최고치인 6.7%를 기록하였고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수준인 4.5%를 상회하면서 물가불안이 고조됨.
 - 물가상승이 계속되자 브라질 중앙은행은 4월 기준금리를 0.25%p 인상한데 이어 5월과 7월 각각 0.5%p인상하였고 이로 인해 2013년 초 7.25%였던 브라질 기준금리는 현재 8.5%까지 상승함.

-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, 브라질 경제는 향후 수년 동안 저성장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.
 - 7월 31일 IMF는 브라질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을 권고하였고, 이에 앞선 7월 10일에는 2013년 브라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.0%에서 2.5%로 0.5%p 하향조정하 바 있음.
 - 8월 6일 신용평가회사 S&P는 2013년 브라질 경제성장률을 2.0%로 예상하고 향후 3년간의 경제 성장률도 2.6%로 전망하면서, 브라질 경제가 앞으로 몇 년간 중국, 인도 등과 같이 고성장이기에 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함.

- 브라질 경제의 고물가 저성장 지속으로 2011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브라질 국채의 손실 우려가 높아 지고 있으며, 비과세 혜택이 있는 브라질 채권에 대한 수요 위축은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인 저축성보험의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.
 -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은행의 예·적금 상품에서 이탈한 자금이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제공하는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몰렸는데,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인 저축성보험과 함께 브라질 채권의 수요도 확대됨.
 - 브라질 채권은 1991년 발효된 한국과 브라질 조세협약에 의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,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과 함께 관심이 더욱 커진 바 있음.
 - 브라질 경제에 대한 위기감 확산과 이로 인한 브라질 국채 수익률의 리스크 확대는 브라질 국채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, 비과세 상품인 저축성보험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.

(Wall Street Journal 등)